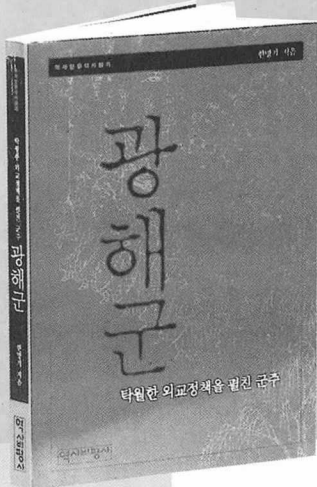


'문제적 인간' 광해군의 꿈과 좌절

《광해군》 펴낸 한명기씨

독일의 민요집 《소년의 마적》에는 '작은 곱사등이' 이 야기가 나온다. "내가 지하실에 내려가 포도주를 좀 꺼 내려 할 때, 작은 곱사등이 거기 있어 내 술항아리를 가로채네. 내가 부엌에 들어가 수프를 만들려 할 때, 작은 곱사등이 거기 있어 내 작은 그릇을 깨뜨리네." 인생을 일그러뜨리는 불운이란 악령을 이처럼 정확하게 묘사한 글도 드물 것이다.



역사비평사/A5신/312면/9000원

전란이 낳은 문제적 인간, 광해군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한명기씨(38)가 펴낸 《광해군》(역사비평사)을 읽다보면, 시대와 장소는 다를지라도 한 시대의 군주를 괴롭힌 '작은 곱사등이'를 도처에서 마주치게 된다. 전란의 와중에서 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올랐지만 끝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고 사후에도 '폭군' '패륜아'란 악명을 뒤집어썼던 비운의 군주 광해군. 한씨가 광해군의 평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우리 사회는 성공신화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역사의 패배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많이 닮았습니다. 전란과 IMF, 명청교체기와 외세문제 등이 그렇죠. 격랑의 시대를 살았던 광해군을 통해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씨가 보기에 광해군은 전란이 낳은 '문제적 인간'이었다. 임진왜란을 만나 영겁결에 왕세자가 된 광해군은 피폐해진 민생을 수습할 짐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왜란을 겨우 수습할 즈음 대륙에선 후금의 누르하치가 떨쳐 일어나 명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정쟁의 소용돌이와 명·청의 압박 속에서 광해군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법을 실시하고 《동의보감》을 반포하는 등 광해군은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고 전후의 사회·경제를 복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광해군의 뛰어난 업적은 무엇보다 명청교체기라는 국제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실력을 양성한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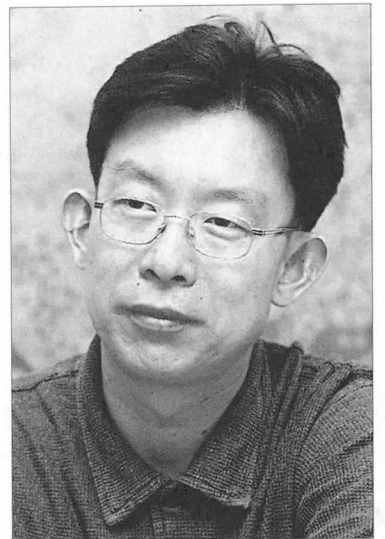
하지만 광해군은 이런 공(功)을 되살리지 못한 과(過) 때문에 역사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은 봉당정치의 흐름 속에서 봉당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북파의 전횡을 용인하는 우를 범했고, 궁궐건설을 위해 무리하게 토목사업을 강행해 반대파에게 축출의 빌미를 제공했다.

"광해군의 실패를 통해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부의 사회적 통합이 없으면 외세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립하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서도 고도의 외교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또 다시 외세에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문체로 씌어진 평전

이 책은 평전이란 형식의 글이 빠지기 쉬운 미화나 비하의 오류에서 멀찍이 빗겨나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료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그의 행적과 시대를 관찰하고 서술한다. 소설로 치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쯤 된다. 그렇다고 사료의 어설픈 나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한편의 사극을 보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친다. 이는 그의 문체의 힘에서도 나온다.

"역사는 스토리야야 하고 역사가는 스토리텔



한명기씨

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시대상을 한 인물을 통해 투사하는 평전형식은 매력적인 글쓰기 양식이죠. 제 글쓰기의 전범은 대만 출신의 역사학자 진순신입니다. 그는 중국 고전에 기반해서 일본 역사학계의 성과를 받아들여 스토리를 꾸며가죠."

이 책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이르는 명청교체기에 조선과 명의 관계를 탐구한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작업이다. 그는 첫 책으로 제25회 월봉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학문의 화두로 삼은 것은 한·중·일의 동아시아 삼각구도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헤아리고 이를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보는 일이다. - 박천홍 기자